



## 종계인, 원종계 쿼터제 도입 필요성 제기

- 10명 중 8명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 -

10

월 22일 천안웨딩코리아에서 ‘종계인 대회 및 종계DB구축사업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본고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 종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설문에 참여한 종계인은 총 89명으로 평균 사육규모 3만5천수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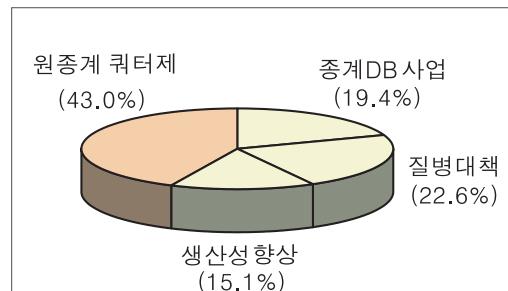
- 흥보팀 -

### 1. 종계업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는?

최근 양계업계는 과잉물량으로 인해 축산물이 생산비에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계인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원종계 쿼터제 실시가 43.0%로 절반 가까이 나왔고, 질병대책 22.6%, 종계DB사업 19.4%, 생산성 향상 15.1%순으로 조사됐다.

육용원종계는 자율쿼터제가 폐지되면서 금년에만 15만8천수로 물량이 넘쳐났고, 산란종계 역시 자율적으로 41만8천수의 쿼터량을 유지했지만, 쿼터제 폐지 이후 올 상반기에만 32만1천수로 과잉입식 되었다. 올해 6월까지 입식된 산란실용계는 전년 총 입식량 대비 70.4%가 입식되면서 6월 산란계 사육수수가 5,972만수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 대비 과잉 생산으로 결국 병폐는 생산자들이 떠안게 되면서 종계인들은 자율쿼터제 시행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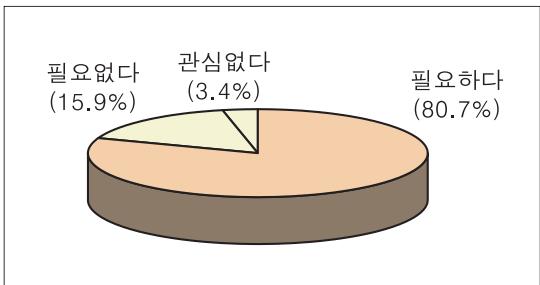


### 2. 원종계 쿼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얼마나 많은 종계인들이 쿼터제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0.7%가 쿼터제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없다 15.9%, 관심없다 3.4% 순으로 답했다.

최근 육용원종계 과잉물량에 대해 자율적으로 감축키로 협의하던 중 일부 업체들이 지분을 양수·양도하는 과정에서 물량감축에 대한 어려운 입장을 표명했고 결과적으로 원종계 자율쿼터제 도입이 어려움에 봉착했다.

더군다나 곡물가, 유류대 가격이 상승하면서 옆 친데 덮친격 늘어나지 않은 소비에 양계생산은 과잉되었고, 시장이 포화상태로 생산비 이상의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적인 계획으로 원종계 쿠터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3. 종계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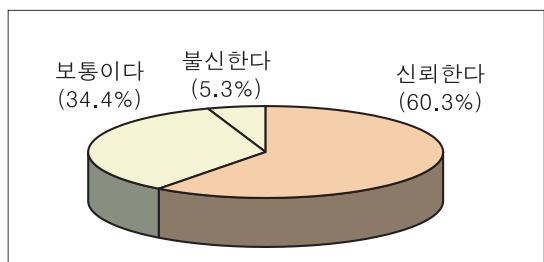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주관으로 본회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전국 종계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종계 데이터베이스(D/B)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약 500여 곳의 종계농가 가운데 직접 농가를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연간 300여 농가로 보다 정확성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종계인들은 종계DB 사업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13.4%, 만족한다 48.6%, 보통이다 31.4%, 불만이다 6.1%, 매우 불만이다 0.5% 순으로 답했다.

DB 자료에는 육용종계·준육용종계·산란종계별 입식현황, 사육수, 생산성, 종계도태, 종계장 현황 등 연도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를 통해 사육규모는 물론 종장기적 수급예측에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 종계 데이터베이스 발표자료(정보지)에 대한 신뢰도는?

본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종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매달 소식지를 발간해 종계인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소식지에는 육용종계, 준육용종계, 산란종계 전망과 함께 종계 입식에 따른 평균 생존율과 산란율 현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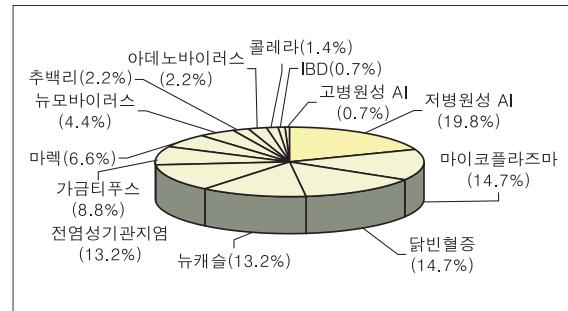
이 자료에 대해 종계인들은 신뢰한다 60.3%, 보통이다 34.4%, 불신한다 5.3%로 나타났다. 현장실사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기에 대부분 신뢰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고 있었다.

### 5. 최근 1년간 농장에 피해를 준 질병은?

1번 문항에서 질병대책이 22.6%로 높은 수치로 나타난 바와 같이 종계업계에서도 질병문제를 넘어서 가지 않을 수 없다. 최근 1년간 농장에서 많은 피해를 준 질병은 저병원성 AI 19.8%, 마이코플라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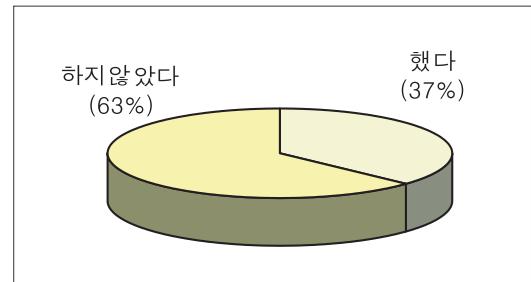
14.7%, 닭빈혈증 14.7%, 뉴캐슬병 13.2%, 전염성기관지염 13.2%, 가금티푸스 8.8%, 마렉병 6.6%, 뉴모바이러스 4.4%, 추백리 2.2%, 아데노바이러스 2.2%, 콜레라 1.4%, IBD 0.7%, 고병원성 AI 0.7%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와 함께 지난 2006년 종계인대회 설문결과 역시 저병원성 AI(28.0%)가 가장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 꼽히면서 몇 년째 만연한 질병으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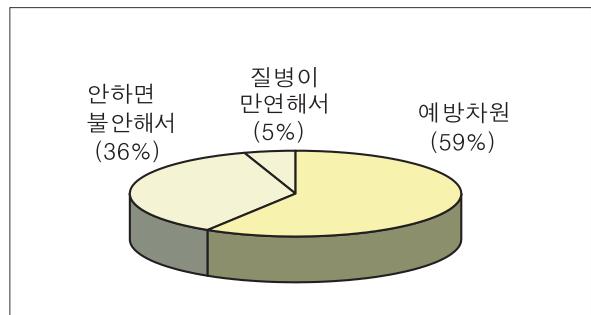
## 6. 최근 1년 내에 가금티푸스 백신을 한 적이 있는가?

양계업계에서 90년대 말 이후 꾸준히 나타나는 질병인 가금티푸스는 난계대전염병으로 백신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종계장이 가금티푸스 예방을 이유로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거 사용이 금지된 가금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위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가금티푸스가 8.8%로 문제시 되는 질병으로 꼽히면서 최근 1년 내에 가금티푸스 백신 접종 했다는 농가는 37%, 하지 않았다는 농가는 63%로 나타났고, 이 수치는 지난 2006년 10월에 조사한 결과보다 높은 수치(백신 접종했다는 곳이 27%)를 나타냈다. 백신접종으로 인한 종계는 피해가 없으나 보균계가 난계대로 후대 병아리에 질병을 옮겨 육계농장에서는 난계대 전염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 유발되고 있어 양계생산성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가금티푸스 백신 접종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 7. 가금티푸스 백신을 했다면 사용한 이유는?

가금티푸스 백신 사용 농가는 난계대 질병 예방차원에서 58.9%, 안하면 불안해서 35.8%, 질병이 만연해서 5.1%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심리적인 차원에서 백신사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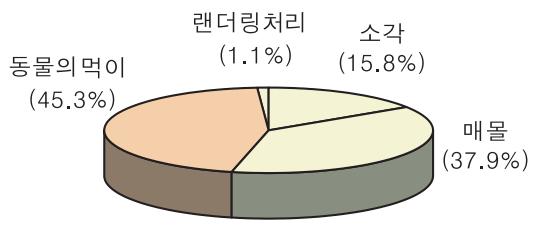


## 8. 폐사계 처리는?

필드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중 하나가 폐사계 처리 방법이다. 좁은 농장 안에 매몰의 한계가 있으며 매몰이나 소각은 수질오염, 환경오염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문제 중 하나로 필드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폐사축처리기가 제작되었지만, 고가의 기계비용으로 개인농장에서는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시군에서 일부 지원을 하거나 공동처리시설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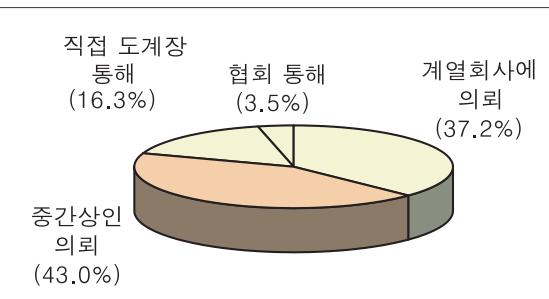
종계 사육과정에서 나오는 폐사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종계인을 대상으로 물어보았다. 동물(개)의 먹이 45.3%, 매몰 37.9%, 소각 15.8%, 랜더링 처리 1.1%로 나타났다. 질병으로 인한 폐사된 가축이 동물의 먹이로 이용될 경우 2,3차 감염 위험 등 위생차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 9. 노계도태 방법은?

경제주령 이후의 노계는 어떻게 도태할까?

중간상인에 의뢰 43.0%, 계열회사에 의뢰 37.2%, 직접 도계장을 통해 16.3%, 협회를 통해 3.5%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 노계처리 업자를 통해 출하하는 기존의 방법이 역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 10. 양계협회가 노계 적정가격을 책정해 노계알선사업을 한다면?

협회에서는 금년부터 산란노계출하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약 80만수 물량이 협회를 통해 출하되었다. 종계노계출하 사업도 곧 시행될 예정으로 보다 농장의 안정적인 노계출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한다. 참여 하겠다 71.4%, 고려해보겠다 22.6%, 불참하겠다 6.0%로 조사되었다.

## 11. 종계업계 발전을 위해 협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 참석한 종계인을 대상으로 협회나 정부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 물어보았다.

지역별로 상이한 종계표준계약서와 계열업체의 일방적인 계약서가 아닌 생산자와 협의를 통해 형평성에 맞는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 계열화업체와 종계농가, 양계전문인, 정부, 농협이 함께 협의하여 종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앞으로 무허가·무등록을 차단하여 통제선 안에 모든 농가가 들어오길 바란다는 내용을 남겼다. 한편, 질병으로 노출되어 있는 백세미의 사육 원천적 금지 고품질의 실용계 생산을 위해 종계업자들의 최선을 다하는 자세 요구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

